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의도덕적기초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아나키즘의도덕적기초
1897

kr.theanarchistlibrary.org

1897

차례

I	3
II	6
III	9
IV	12
V	14
VI	17
VII	21
VIII	25
IX	30

인류의사상사思想史는시계추의진동을연상시킨다. 이진동의주기는수세기에이른다. 긴수면睡眠의시기가 지나면각성의계기가찾아온다. 그때사상은정부, 교회, 법등모든이해당사자들이채운정교한족쇄로부터해방되어그들을물리친다. 사상은자신을가르쳤던모든것을엄격히비판한다. 사상은종교적, 정치적, 법률적그리고사회적편견들의품에서성장했지만, 그편견들을폭로한다. 사상은새로운모색을위해미지의길로나아가고, 기대하지않은발견을통해우리의인식을풍요롭게하고새로운과학을창조한다.

그러나사상의뿌리깊은적들인정부, 법, 종교는곧패배에서회복한다. 그들은조금씩흩어진세력을결집하고, 자신들의믿음, 법을해방시키고, 새로운요구에맞게적응시킨다. 자신들이배양한노예적순종을이용하고, 일시적인사회혼란을이용하고, 안정에대한열망과부에대한욕망그리고기만적인희망을특히, 이기만적희망을악용한다. 그들은다시조금씩자신들의과업을착수하여우선어린이의교육을장악한다.

어린이의이성은아주나약해서쉽게공포에순종하도록길들여진다. 그들은바로이것을이용한다. 그들은어린이들에게두려움을심어주고, 그다음에는지옥의고통에대해이야기해준다. 또한, 지옥에서영혼이수난당하는장면을그들에게보여준다. 다음단계에서그들은어린이들에게혁명의무서움에대해말하고, 혁명의특수하고극단적인사례를악용하여어린이들을‘체제의친구’로만든다. 성직자는어린이들에게법사상을가르쳐신의법에쉽게복종하게만든다. 법률가는어린이가시민법에복종하게만들기위해신의법에대해말할것이다. 이렇게미래세대의생각은종교적흔적을갖게된다. 동시에이것은사유에나타난절대주의와노예제도의흔적이기도하다. 왜냐하면절대주의와노예제도는손에손을잡고굴종의습관을지향하기때문이다. 동시대인들속에서이굴종의습관을연구할기회는충분히많다. 도덕의문제는종교적관습과법적위선으로슬쩍대체된다. 비판은실종된다. 모두가관습과무관심의힘에굴복한다. 열렬한신봉자들은기존의도덕률을비판도옹호도하지않는다. 각자는겉으로만, 힘닿는대로자신의행동을도덕률이설교하는것에일치시키려고노력한다. 사회의도덕적수준은점점낮아진다. 그렇게해서타락한로마의윤리, 구제도의윤리, 자본주의체제의종말을특정짓는도덕에이르게된다.

인간의선하고, 고상하고, 훌륭하고, 독립적인모든것은조금씩무디어지고, 오랫동안사용하지않고방치된칼처럼녹슨다. 거짓은덕행이, 속물근성은의무가된다. 부를획득하는것, 쾌락의순간을찾는것, 지혜와감정과에너지의보고를멋대로탕진하는것, 이모든것은부유한계급의슬로건이될뿐만아니라, 부르주아처럼보이는것을이상으로삼는대다수가난한자들의슬로건이된다. 그때부유한계

급, 재판관, 성직자와같은지배계급의타락은분노를일으키게되고, 시계추가반대방향으로운동하기시작하는계기를제공한다.

젊은이들은조금씩해방되어모든편견을던져버린다. 우선개인적으로다시비판이시작되고, 사유가넘치게된다. 각성이눈에뜨이지않게대중을사로잡는다. 압력이발생하고, 혁명이폭발한다.

그때마다윤리의문제가무대로돌아온다. “왜나는이위선적도덕원리를따라야하는가?”이런질문이종교적공포에서해방된머리에떠오른다. “어떤것이든도덕은왜의무적인것이되는가?”

그때이도덕적감정을명료하게이해하려는시도가나타난다. 도덕적감정의본질을설명할수는없지만, 우리는매번그것과부딪친다. 그에대한설명은그것을인간본성의특권으로생각하지않을때, 본질을이해하기위해낮은단계의동물과식물을연구할때, 비로소가능해질것이다. 현대과학의논거와일치하는설명을찾기위한노력은계속된다.

이런논의가필요한가? 일상적도덕의토대, 더정확히말해서, 도덕을대체한위선의토대를더많이허물수록사회의도덕적수준은더향상된다. 도덕감정이비판을받고전면적으로부정되는그시기에, 도덕감정은가장빠르고성공적인발전을이룬다. 즉그때야그것은고양되어, 자라고완성된다.

이에대한예를 18 세기에서찾을수있다. 맨더빌 (B.Mandeville) 은이미 1723 년 『꿀벌의우화』 와그에대한자신의주해로영국에서스캔들을일으켰다. 그는도덕이란미명아래횡행하는사회적위선을공개적으로공격하였다. 그는소위일상적관습의도덕성이란것은위선의가면일뿐이며, 일상도덕률의억압을받는욕망은제한을가하면가할수록반대로더욱더치명적인영향을갖는다는것을증명하였다. 푸리에 (F.Fourier) 처럼, 그는욕망이무수한악덕으로변형되지않도록욕망의발현에완전한해방을부여할것을요구하였다. 그는동물학에대한지식이동시대에부족했음을제대로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인류의도덕사상이이문제에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 즉부모세대와지배계급의목인에서비롯되었음을밝혔다. 스코틀랜드의철학자들과백과전서파가도덕사상을열렬히비판했던것은모두가알고있다. 1793 년의아나키스트들도알려져있다. 법률학자, 애국주의자, 자코뱅주의자들은강제의원리와절대자의도덕적승인을찬양한다. 그러나기오 (M.-J.Guyau) 와유사하게무신론자-에베르 (Hébert) 파혁명당원¹들은강제와도덕의승인을부정한다. 이들중에서어느쪽이더발전된도덕감정을주장하는지모두가알고있다.

“왜나는도덕적이여야하는가?”이것은 12 세기의합리주의자들, 16 세기철학자들, 18 세기의사상가와혁명가들이제기한질문이다. 영국의공리주의자들인벤담 (J.Bentham) 과밀 (J.S.Mill), 뷔히너 (L.Büchner) 와같은독일의유

의미한다. 원한다면그렇게행동하라. 그러나그런경우에사람들은그대를작고쓸모없는나약한인간으로여기고, 그런관점에따라그대를대할것임을미리알아야할것이다. 네안에서힘을보지못하면사람들은단지연민의대상으로그대를대할것이다.

이렇게그대자신이자신의능동적힘을무기력하게만든다면, 다른사람들을타하지말라.

반대로강해져라. 불의의목격자가되고, 생활에서의불의든, 과학에서의거짓이든혹은누군가에게자행된고통이든그것을발견할때마다불의, 기만, 부당함에저항하라. 투쟁하라! 투쟁은생명이다. 생명이치열할수록투쟁은더뜨거워진다. 그때그대는살았다고말할수있으며, 그대는부패한늪에서무위도식하는수년간을위해이러한삶의몇시간을포기하지는않을것이다.

투쟁하라! 샘처럼솟는완전한생명의가능성을다른사람들에게주기위하여투쟁하라. 이투쟁에서그대는어떤다른무대에도존재하지않는거대한기쁨을얻게될것임을믿으라.”

이것이도덕에대한과학이그대에게말할수있는것이다. 선택은그대의손에달려있다.

¹ 역주 - Hebertiste. 프랑스혁명에서반기독교주의, 지롱드파와온건파의근절을요구했던에베르 (Jacques-René Hébert) 의추종자들.

(N.M.Rothschild) 라할수있다. 우리가지적인, 예술적인유산을아무리적게물려받았다해도, 육체노동에서달리는수백만의사람들과비교할때, 우리는로스차일드라할수있다. 대부분의육체노동자들은학과예술의즐거움에는도달할수도없고, 그런고상한즐거움을경험하지도못하고삶을끝내기때문이다.

우리는아직평등의원리를관철시키지못하고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우리는이조건들과타협하고싶지않다. 우리는그것에분노한다. 그것은우리를탄압하여혁명가로만들고있다. 우리가대항하여싸우는것들과화해할수없다. 오히려우리는화해를거부하고이조건들과최후까지투쟁할것을맹세한다.

이것은이미타협이아니다. 확고한신념을가진사람에게는타협이필요없다. 타협은모든것이저절로해결될때까지편안히잠들게할뿐이다.

드디어우리는논문의결말에이르렀다.

도덕성에대한개념이급격히변화하는시대가있다고이미언급하였다. 도덕적이라고생각되던것들이본질상극도로비도덕적이될수있다는것은분명하다. 이경우에해당하는것은기원자체가비도덕적이지만존중받는전통과풍속이다. 다른경우는단지한계급의이해를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도덕이다.

이모든것을우리는‘도덕을타도하라’고외치며던져버리고, 비도덕적행동의실현을자신의의무로여기기시작한다.

우리는그러한시대를환영한다. 그것은비판의시대다. 비판은사회에서진정한사유의작업이일어나고있으며, 높은차원의도덕성이생기고있다는가장참된징후가된다.

이도덕이어떤형태를취하게될것인가? 우리는인간과동물에대한연구를토대로그것을표현하려고노력한다. 우리는대중과개별사상가들에게서태동하고있는도덕사상의윤곽을이미보았다. 이도덕은강제적성격을갖지않을것이다. 종교, 법, 정부의도움으로인간을복제물로만들기를거부하는것처럼, 이도덕은인간을추상적사상을가진복제물로만들기를단호히거부한다. 이도덕은개인에게완전하고절대적인자유를부여한다. 이도덕은단순한사실확인이상의것은아니지만, 결국은과학으로변화할것이다. 이과학은인간에게이렇게말할것이다.

“그대가그대안에충분한힘을느끼지않는다면, 그대가선명한감동없이, 큰기쁨없이, 그러나큰고통도없이, 평범하고단조로운삶의유지를위해필요한만큼의힘만을갖고있다면, 그대는정의로운평등의단순한원리를따라라.

평등의조건에서적어도그대는자신의힘에상응하는행복의최대치를발견할것이다.

그러나그대안에서젊은열정이말한다면, 그대가넘쳐나는충만한삶을살고즐기기원한다면, 즉살아있는존재가꿈꿀수있는최고의행복을인식하기를원한다면, 모든행동에서강해지고, 정력적이되어라.

주위에생명을확산시켜라. 기억하라. 거짓을말하고, 사기를치고, 교활하게행동하고, 음모를꾸미는것은자신의나약함을일찌감치인정한다는것을의미하고, 자신을주인보다낮은자리에있다고생각하는하렘의노예와다름없다는것을

물론자들, 1860-70 년대의러시아니힐리스트들, 아나키즘윤리그리고사회도덕에대한학문의젊은창시자였지만불행히도요절한기오도다시이문제를다루었다. 그리고지금프랑스아나키스트들도그런질문을던지고있다.

왜그럴까?

30 년전러시아젊은이들도이문제에몰두하였다. “어떤경우에나는비도덕적으로행동하고, 나는비도덕적인것처럼보인다. 그러나나는왜비도덕적으로행동해서는안되는가? 성서가이것을요구하기때문은아닌가? 그러나성서란것은바빌론과유대인의신화모음집이상의것은아니다. 이것은호메로스의서사시, 바스크족의서사시혹은몽골의전설과같이구성된전통이다! 나는동방의반야만족들의지적수준으로돌아가야하는가? 칸트 (I.Kant) 가정언적명령에대해, 내‘자아’의심연에서발생한비밀스런명령에대해말하면서, 도덕적이여야한다고명령하기때문에, 나는비도덕적인것처럼보이는것인가? 그러나때때로내게술에흔뻑취하라고하는것은다른명령보다이‘정언적명령’은내행위에대해왜더많은권한을갖는가? 모든일은단지 말에있다. 단지말뿐이다! 이것은섭리혹은운명, 즉우리의무지를감추기위해고안된말과완전히같지않은가! 벤담은강에빠져허우적거리는사람을바라보기보다는, 그를구하느라자신이물에빠지는것이더행복할것이라고우리에게말한다. 그렇다면우리는벤담을만족시키기위해도덕적이여야하는가?

혹은다른교육이아니라그렇게교육받았기때문인가? 내어머니가내게도덕을가르쳤기때문인가? 그렇다면, 나는십자가상혹은성모상앞에넙죽엎드리고, 왕혹은황제를존경하고, 내가사기꾼이라여기는재판관에게경의를표할필요가없단말인가? 단지이모든것은나의어머니그리고우리들의어머니가주선량하지만아주무지하며, 우리에게온갖어리석은것을가르쳤기때문이란말인가?

이모든것은모든다른것들처럼편견일뿐이며, 나는그것들로부터벗어나기위해일할것이다. 어린시절공포를일으키던어둠, 무덤, 환영과시체를두려워하지않기위해애썼던것처럼, 내의지에반하여내가비도덕적이여야한다면, 나는그렇게되지않게나자신을강제할것이다. 나는종교가사용하는무기를파괴하기위해이렇게할것이다. 나는위선에대항하기위해그렇게할것이다. 위선은말을수단으로우리를강제하고, 사람들은말을수단으로도덕에세례를베풀기때문이다.”

구시대의편견과결별하고니힐리즘 (허무주의)² 혹은, 더진실하게말하면, 아나키즘철학의깃발을올릴당시에, 러시아젊은이들은다음과같이생각하고있었다. “아무리높은것이이라도어떤권위에도굴복하지말것, 이성에의해검증될때까지는어떤원리도추종하지말것.”

² nihilism. 기존의가치, 이상, 도덕규범, 문화, 국가를부정하는사상적경향으로, 러이사작가인투르게네프의소설 『아버지와아들』 에서처음사용되었다. 기존의가치를부정한다는점에서니힐리즘과아나키즘사이에는공통점이있다. 니힐리즘을따르는사람들을니힐리스트라한다.

도덕에대한아버지들의가르침을쓰레기통에던져버리고모든도덕체계를태워버린후, 젊은니힐리스트들은도덕 **행위**의싸움, 즉복음, ‘양심’, ‘정언명령’혹은공리주의의‘이성적으로이해된이익’의비호아래아버지들이실천했던모든것보다무한히고귀한싸움을자신속에키웠다.

그러나무엇보다도다음과같은질문에답해야한다. “왜나는도덕적이여야하는가?”그러나우리는질문자체가올바르게제기되었는지고찰하고, 인간행위의동기를분석하고자한다.

II

어떤자극이인간으로하여금이러저러하게행동하도록만드는가를명료하게하기원할때, 우리조상들은아주간단하게결론에도달하곤하였다. 조상들이이문제를설명하는수단을묘사한가톨릭성화가지금도남아있다.

한사람이들판을걸어간다. 그는왼쪽어깨에는악마가오른쪽어깨에는천사가앉아있다는것을모른다. 악마는악행을행하는쪽으로그를밀치고, 천사는그렇게하지않도록그를붙든다.

천사가우위를점하고그사람이선량함을유지하면, 다른세천사가손으로잡아그를하늘로데려간다. 그렇게모든것은성화에그려진대로설명된다.

이런점을아주잘알고있는우리늙은유모들은아기를침대에누일때, 꼭웃깃의단추를풀어야한다고말한다. 수호천사가머물수있도록얼굴바로아래쪽따뜻한장소를열어두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잠잘때악마가아이를괴롭힐것이라는것이다.

이런순진한생각은사라졌다. 그러나낡은용어들이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고해도본질은여전히그대로남아있다.

계몽된사람들은더이상악마를믿지않는다. 그러나그들의생각은우리늙은유모들의미신보다더이성적이지않다. 그들은현학적수사로악마와천사를은폐하고, 그것에철학이란이름으로경의를표한다. 그들은위선적이다. 그들은이제‘악마’대신에‘욕망의육체’를말한다. ‘천사’는‘양심’과‘영혼’혹은프리메이슨이말하는것처럼‘창조주혹은위대한조물주의기획의반영’이란말들로대체된다. 그러나인간들의행위는전처럼두적대적인요소들사이의투쟁으로묘사된다. 그래서영혼혹은양심이육체혹은욕망보다우세할때, 인간은여전히선하다고인정된다.

영국철학자들그리고후에백과전서파는악마와천사는인간의행위와전혀관련없으며, 인간의모든행위는중거나나쁘거나, 유익하거나해롭거나하는쾌락의추구라는한가지동기에서만유래한다고주장하였다. 원시적개념을부정하는이런주장때문에우리조상들이꽤나놀랐으리란것은어렵지않게이해할수있다.

멀하는모든이의마음이그대를 **반대**하는것을느낄것ियो.”이렇게말할때우리는무엇을설교하는가? 이타주의인가아니면이기주의인가?

투쟁하는것, 위험에맞서는것, 사람뿐만아니라고양이를구하기위해물속으로뛰어드는것, 우리를보호하게만드는불의를끝내기위해굶주림까지도감수하는것, 사랑을받아마땅한사람들과연대하는것, 반대로그들로부터사랑을받는것, 이모든것이나약한철학자에게는희생일것이다. 그러나에너지, 힘, 용기, 젊음으로충만한남녀에게존재의모든기쁨은바로여기에포함되어있다. 이것은무엇인가? 이것은이기주의인가이타주의인가?

일반적으로이기주의적감정과이타적인감정의허구적대립위에자신의시스템을세웠던도덕론자들은잘못된길로빠졌다. 이대립이실제로존재했다면, 개인의행복이실제로류類의행복과대립했다면인류의생존은불가능했으며, 어떤종류의동물도현재의발전단계에이를수없었을것이다. 각각의개미가개미총의평안을위해일하면서큰만족을경험하지않는다면, 개미의생존은불가능하고, 개미는지금의모습과는달라졌을것이다. 즉, 곤충의세계에서가장높은단계의발전을이룩한생물, 확대경으로간신히볼수있는작은뇌임에도불구하고평균적인간과같은정도의능력을부여받은생물이되지않았을것이다. 새들이계절적인이동, 새끼들을위한수고와맹수를방어하기위한공동협력에큰만족을얻지않았다면, 현재의발전단계에이르지못했을것이다. 조류는진보하는대신퇴보했을것이다.

개인의행복이류類의행복과일치하는때가올것이라고말할때스펜서는한가지를잊고있다. **모든시기**에두가지이해관계가 **동일하지않았다면**, 동물세계의진화는불가능했을것이다. 그렇다. 모든시기에, 동물세계에서처럼인류사회에서도, 대부분의개체는개체와그것의전체인류의행복은본질상동일하다는것을이해하지못했다. 생명력의강화가개체의삶의주목적이기때문에, 개체는최대의사회성숙에서그리고고유의‘나’와주변의모든존재들과의최대의동일성속에서, 생명력의강화를모색한다. 그러나대부분의개체는그러한사실을이해하지못했다.

이성과이해력의부족이이러한결과를낳았다. 어떤시대에도현명하지 못하고무지한사람들이존재했다. 그러나역사심지어지리학의어떤시대에서도개체의행복이사회의행복과대립한적은없었다. 이들은언제나같았고, 이것을누구보다잘이해할수있었던자들이더완전한삶을누릴가능성을가질수있었다.

우리의관점에서, 이기주의와이타주의의대립은비합리적이다. 바로이때문에우리는, 이기주의적감정과이타주의적감정사이에서동요하는사람들이 - 공리주의자들의입장을받아들일때 - 끊임없이저지르는타협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 확신을가진사람에게그런타협은없다.

실제로그런일이일어나고있다. 동시대현실의조건에서평등의원리에따라삶을건설하려고할때, 우리는매결을평등원리가유린되고있음을느낀다.

우리의식사와거주지가아무리초라하더라도, 다리밑에서잠자리를찾거나마른빵조각도없이고생하는사람들과비교할때우리는로스차일드

것이다. 즉시당신은언젠가갖고있던힘과결정의직접성을상실하고말것이다. 당신은분열된존재가될것이다.

인간은독자적으로작용하는신경과뇌조직들로이루어진복잡한존재다. 인간을그렇게생각한다면, 여기에는아무런비밀스러운것도없다. 시험삼아당신내부에서투쟁하는다양한감정들사이에서동요해보라. 그러면당신자신의유기체의균형은파괴되어, 당신은의지를상실한병든인간으로바뀌고말것이다. 삶의치열함은줄어들고당신은무익하게타협을찾게될것이다. 당신은이성의현실적판단과행동이완전히일치했던인간, 그때의완전하고강하며건강한인간이더이상아닐것이다.

IX

이제결론을내리기전에이타주의와이기주의에대해서몇마디할것이다. 이두개념은영국학파에게서유래된것으로, 낯가에윙윙거리며우리를피곤하게만든다.

이논문에서우리는아직이것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 왜냐하면영국도덕론자들이구별하려고했던두개념의차이를우리는긍정적으로보지않기때문이었다.

“남에게대접받기원하는대로, 너희도남을대접하라.”고말할때우리는이기주의혹은이타주의를설교하는것일까?

아니면좀더수준을높여서우리는“개인의행복은주변사람들의안녕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다른사람들의불행행위에건설된사회에서도당신은일정기간상대적인행복을느낄수있다. 그러나행복은모래위에세워진것이다. 그것은지속될수없다. 아주작은충격에도그행복은붕괴될수있다. 평등한사람들사이의행복과비교할때그것은하찮은것이될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공동선을목적으로삼을때우리의행동은언제나좋은것이될것이다.”우리가이렇게말할때우리는이타주의혹은이기주의를설교하는것일까? 아니다, 우리는단순히사실을확인하는것이다.

우리는기오의금언을풀어이렇게말한다. “그대가충만하고완전하며결실이풍성한삶이주는쾌락을귀중히여긴다면, 강하고당당해지시오. 모든행동에서힘과당당함을보이시오. 삶을모든방향으로발전시키고, 가능한많은에너지를축적하시오. 이를위해가능한한더욱호감가는, 사회성이강한인간이되도록노력하시오. 폭넓게성숙한이성을따르고, 모험을두려워하지말고투쟁하시오. 모험속에는고유한매력이있습니다. 이해타산을따지지말고힘이있는동안그대가위대하고아름답다고여기는모든것을위해자신의힘을바치시오. 그때그대는가능한행복의총체를향유할수있을것시오. 대중과하나가되시오. 그때삶속에서그대에게무슨일이일어나든지, 그대가존중하는이의마음이당신을 **옹호하고**, 그대가경

특히온갖종교단체들과수많은바리사이파사람들은이런주장이비도덕적이라고성토했다. 사상가들에게온갖욕설을퍼붓고, 그들을저주하였다. 그러나시간이어느정도지나금세기예벤담, 존스튜어트밀, 체르니셴스키그리고많은사람들이다시이사상으로돌아갔고, 사상가들은에고이즘혹은쾌락의추구가모든행위의동기라는것을주장하고증명하였다. 그러자훨씬더강력한저주가다시살아나게되었다.

그렇다면이런입장보다더정의로운것이있을까?

여기한사람이있다. 그는어린아이의마지막남은빵조각을빼앗는다. 그는무지막지한이기주의자이며, 전적으로이기주의의지배를받는다라고모든사람들은한목소리로주장할것이다.

그러나여기다른사람이있다. 모두가그를선하다고생각한다. 그는마지막남은빵한조각을배고픈사람과나눈다. 그는자기옷을벗어헐벗은사람에게준다. 늘종교용어를사용하는도덕주의자들은, 그는자신의이익을포기할정도로이웃사랑의원리를실천하고있으며, 그를지배하는것은이기주의와아무관계없는감정이라고서둘러선언한다.

그런데조금만신중히생각하면, 두행동의결과는완전히다르지만, 쾌락의추구라는행위의 **동기**는동일하다는사실이즉시분명해진다. 자신의마지막옷을내어주는사람이그행위에서쾌락을얻지못한다면그는그런행위를하지않았을것이다. 반면에만족을얻을수있다면그는어린아이의빵을빼앗았을것이다. 그러나그는그런행동을싫어하고, 남에게베푸는것이그에게쾌락을주기때문에그는베풀뿐이다.

이미일정한의미를갖고있는단어들을새로운의미로사용할때개념의혼동이발생할수있다. 그런혼동의위험이존재하지않는다면, 이기주의가모든인간행동을위한자극제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어떤사람들은실제로그렇게말했다. 위에서언급한두행동에서로다른동기의지배를받는다는망상과신화를깨뜨림으로써, 자신의생각을명료하게드려내고, 사상을더섬세하게공식화하기위한것이였다. 동기는하나다. 그것은쾌락의추구이거나, 결국같은말이지만, 고통을피하려는욕망이다.

3 만 5 천의파리주민을학살한티에르 (L.-A.Thiers) 같은악인을예로들어보자. 음란한생활을위해온가족을살해한살인자가있다고하자. 그순간에명예욕혹은돈욕심이다른열망보다우세했기때문에그들은그렇게행한다. 그순간에불쌍히여기는마음, 나아가동정심은다른감정, 다른욕망에의해완전히압도당한다. **자기본성의욕구들중하나를충족시키기위해서** 그들은거의자동기계처럼행동한다.

거창한욕심은제쳐두고천박한인간을예로들어보자. 아니면허풍으로혹은괴를부려친구들을속이고, 술값을뜯어내기위해틈만나면거짓말을하는사람이있다. 아내혹은정부에게다이아몬드를사주기위해노동자의푼돈을도둑질하는부르주아가있다고하자. 자잘한사기꾼을예로들수도있다. 그도또한자신의성벽에

복종할뿐이다. 그는육구의만족을추구하고, 자신에게고통을야기하는것을피하려고한다.

마치러시아의니힐리스트들처럼억압받는자들을해방하기위하여자신의생명을희생하고교수대로향하는영웅들과위와같은자잘한사기꾼을비교하는것이불편한느낌을줄수도있다. 전자는아주매력적이고, 후자는혐오스럽다. 그렇다면순교자를, 지금교수대앞에선한여인을생각해보자. 그녀는이순간교수대에오를준비가되어있으며, 자신의생명을, 박해받은동물의생명을, 심지어자신의죽음을노동자에게서훔친돈으로살고있는자잘한사기꾼의생명과바꾸지않겠다고말한다. 그녀는자신의삶속에서, 강력한괴물과의투쟁속에서 **자신**을위한최고의패락을발견한다.

그녀는이투쟁의틀에서벗어난것을, 부르주아적삶의지엽적인기쁨과비애를빈한하고가엾은것으로여긴다. 즉“당신들은사는것이아니고, 무위도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나는살았습니다!”라고그녀는당신들에게대답할것이다.

당연히지금우리는인간의의도된, 의식적행위에대해말하고있다. 우리삶의대부분을채우는많은양의무의식적, 거의기계적인행위에대해서는나중에언급할것이다. 그렇게의식적이고이성적인행위에서언제나인간은패락을제공하는것을얻으려는열망의지배를받는다.

어떤사람은동물과같은지경에이를때까지매일술을마신다. 자신의신경시스템에서얻을수없는신경의각성을술속에서찾기때문이다. 또어떤사람은술이만족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술을마시지않고거절한다. 왜냐하면술보다더선호하는다른기쁨을즐기기를원하기때문이다. 그의행동은미식가가 - 화려한음식에뉴를훑어본후 - 더좋아하는다른음식을실컷먹기위해서좋아하는음식을거절하는것과같지않을까?

어떤일을하든지인간은언제나패락을추구하거나고통을피하려한다.

어떤부인이적선하기위해마지막빵조각을먹지않고, 추위에떠는여자에게자신의마지막옷을벗어주고자신은배갑판위에서추위에떠다. 이부인이그렇게행동하는이유는, 추워떠는사람과배고픈사람을보는것이자신이추위와배고픔으로고생하는것보다훨씬더고통스럽기때문이다. 그녀는고통을피하고, 그고통의아픔은그것을경험한사람만이알고있다.

기오가에로든오스트레일리아사람은친척을살해한자에게복수하지못했다는생각때문에자책하고, 겁쟁이란생각에괴로워하며쇠약해진다. 복수를실행했을때에만그의건강은회복된다. 자신을학대하는감정과단절하고다시최고의패락인내적만족을얻기위하여, 그는자주영웅적으로행동한다.

원숭이무리는총탄에쓰러진동물을보면, 무기의위협에도불구하고, 사냥꾼의천막을에워싸고시체의반환을요구한다. 드디어무리의지휘자가용감하게천막으로들어가우선사냥꾼을위협하고, 다음에는그에게간청을하여시체를돌려주게만든다. 그러면모든무리가소리를지르며시체를숲으로옮긴다. 이때원숭이들은동정심이란본능에따르며, 동정심은개인적안정에대한생각을압도한다. 그

이러한삶의생생한샘물을맛보지못한사람은과거에속한노인, 쓸모없는인간, 개화하지못한채시들고마는식물일뿐이다.

“생명이란이름을받을자격이없는생명은시들어가는이세대에게 (시대의종언) 주어버립시다.”라고생명으로충만한젊은이들, 살기원하고주위에생명의씨를뿌리려는젊은이들은외친다. 언제든지사회가붕괴되기시작할때면, 일치단결하여돌진하는젊은세대가낡은경제, 정치, 도덕적형식을파괴하고새로운생명을심는다. 뛰어난개인들이투쟁에서죽는다는것은큰불행일것이다! 그러나삶의맥박은계속된다. 생명은앞으로계속나아간다. 죽은사람들에게, 어떤결과들이그를위험한다고해도, 산다는것은개화를의미하였다. 그는결과에대해안타까워하지않는다.

그러나우리는인류역사의영웅적시대에대해언급하지않고, 일상적삶에대해서만평가한다면, 우리의이상과반대로진행되는삶을삶이라고부를수있을까?

우리의동시대인들은이상에대해의심쩍은투로말하곤한다. 그것은이해할만하다. 아주빈번히사람들은이상을불교와기독교적이단괴여버렸고, 순진한사람들을기만하기위해이상을유포시켰다. 때문에그런반응은필연적이고유익하기도하다. 우리의입장에선그런오물로뒀인‘이상’이란단어를새로운사상에더적합한다른단어로바꾸고싶기도하다.

그러나우리가어떤단어를사용든지, 사실자체는그자리에남아있다. 즉모든사람은이상을갖고있다. ‘불과칼’이라고표현해서몹시괴하지만, 비스마르크에게도그가가진이상이있다. 부르주아의이상은감베타 (Gambetta) 의순금육조와요리사그리고많은노예들이다. 여기서노예는순금육조와요리사비용을마련하기위해꼭필요한것이다.

그러나그들과나란히더높은이상을가진사람들이존재한다. 더이상그들은순수하게동물적인존재양식으로만족하지않는다. 그들은노예상태, 거짓, 정직성의결핍, 인간관계에서의음모에대해분노한다. 어떻게그들이거짓말쟁이, 노예, 폭군, 박해자가될수있단말인가! 인간들사이에더좋은관계가수립된다면, 삶은훨씬더아름다워질것이란것을그들은알고있다. 길에서만나는사람들과매번더좋은관계를수립하기위해필요한힘이자신에게있음을그들은느끼고있다. 그들은이상이라 불리는것을성취할것이다.

이런이상은어디에서오는가? 이상은어떤방식으로형성되는가? 유전을통해서인가, 생활에서받은인상에의해서인가? 이에대해서우리는아는것이없다. 우리는이상의발전에대한어느정도옳은이야기를각자의전기傳記에기록할수있을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상은현존한다. 이상은변하고진보하며외적인영향에굴복하기도하지만, 그래도늘살아남는다. 이것은우리에게가장큰생명력과삶의기쁨을주는것에대한무의식적느낌이다. 그러한개념의이상에답할때에만, 삶은건강하고, 풍성한결실을맺고, 풍요한감정이될것이다. 이개념과반대로행동해보라. 그러면당신은삶의분열을느낄것이다. 삶은완전성을잃고, 힘을상실하게될

힘들어은폐한다. 큰지성을소유한사람의경우에생각은샘처럼솟는다. 즉그는이
쭉쭉모두아끼지않고나누어준다. 자신의생각을함께나누고, 그것을모든방향
으로확산시킬수없는경우, 그는고통스러워한다. 그의경우에는여기에모든생명
이있다.

감정의영역에서도그런현상이발생한다. 우리는우리자신에대해서만만족할
수는없다. 즉“우리의논물은내고통에필요한것보다훨씬더많다. 우리는존재가
인정한것보다더많은기쁨을보유하고있다.”기오는도덕의모든문제를이렇게자
연에서빌려온몇줄로올바로요약하였다.

고독한존재가주변의사람들과생각과감정을나눌수없을때그는고통스러워
하고불안정해진다. 큰행복을경험할때인간은주변의사람들이그가존재하고, 사
랑하며, 살고, 저항하고투쟁한다는것을알기원한다.

그는동시에자신의의지, 자신의적극적감정을표현할욕구를느낀다. 활동과
노동은이미거의모든사람들의욕구가되었다. 이것이바로우리삶의맹목적조건
때문에유익한노동을상실한모든남녀가자신들의능동적힘에맞는활동의장을찾
기위해공허하고무의미한일과의무로고안해내는이유다. 유익한일과유익한직
업에종사하고있음을스스로확신하기위해그들은무엇인가를, 즉그러한이론, 종
교, ‘사회적의무’를찾아낸다고한다. 그들에따르면, 춤을춘다면그것은단지남
을돕기위한것이다. 그들이웃에많은돈을투자한다면, 그것은단지귀족사회에서
체면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그들이전혀아무것도하지않는다면, 단지원리만을
위하기때문이다.

언제나인간은이웃을도우려는, 인류진보의거대하고힘겨운운동에기여하려
는욕구를느낀다.

어떤경우에도“모든사람은이과제에열중한다.”고기오는말한다. 보편적사
업에기여하려는욕구는매우커서, 우리는모든사회적동물에게서, 심지어는가장
낮은발전단계에있는동물에게서도그것을발견한다. 그러나정치영역에서결실
없이낭비되고있는이열광적활동은무엇일까? 이것은역사의수레바퀴에힘을실
으려는욕구혹은모두의합창에참여하려는욕구와는다른것이다.

의심의여지없이, 감정이빈곤하고창조적능력이부족할때, ‘풍부한의지’와
활동에대한열망은나폴레옹 1 세혹은비스마르크같이역사의바퀴를거꾸로돌리
려는광인들을탄생시킨다. 다른한편풍성하지만성숙한동정심이결여된사유는,
과학의진보를억제하기만하는학자들의경우처럼, 건조한결실을맺는다. 마지막
으로폭넓은이성의통제를받지않는감정은거친짐승같은자를위해희생하려는,
즉그에게모든사랑을바치는여성들을만들어낸다.

정말로많은결실을얻기위해서는삶속에이성, 감정, 의지가동시에풍부하게
존재해야한다. 그러나그런경우에이다면적결실은 **삶그자체**이고, 이것만이유
일하게이런이름으로불릴수있다. 삶의빛을받은사람은이러한삶의한순간을얻
기위해수년간의무기력한생활을포기한다.

들에게서이감정은모든다른감정들보다우위를점한다. 자신들의동료를삶으로
되돌릴수있다고생각하는동안, 원숭이들은목숨을건다. 이감정은매우괴로운것
이어서, 가엾은동물들이감정을떨어내기위해모든위험을감수한다.

몹쓸동물인인간이개미총에불을놓으면, 수천마리의개미들은개미총으로몰
려가수백마리씩죽어가며유충을구출한다. 이때개미들도자신의후세를보호하
려는요구에따라행동하는것이다. 만죽을얻기위해개미들은부르주아 어머니가
자기아이들을양육하는것보다더많은수고를들여기른유충을꺼내는모험을감수
한다.

마지막으로섬소충은너무강한빛을피하기위해더적당한온도를찾아이동한
다. 식물은태양을향해꽃의방향을바꾸고, 밤이되면나무는잎을늘어뜨린다. 이
때모든생물은고통을피하려는요구에따라움직이며, 쾌락을추구한다. 즉개미는
오스트레일리아인, 기독교의순교자, 그리고순교자·아나키스트와똑같은것이
다.

쾌락을추구하고고통을피하는것은유기적생명의보편적동인이다.(어떤사람
들은이것을 **법칙**이라고부르기도한다.) 여기에생명의정수가포함되어있다. 만
족의추구가없다면, 생명자체는불가능하게된다. 조직된물질은와해되고, 생명
은중단될것이다.

그래서, 인간의행위가어떠하든지, 행위의방향이어떠하든지, **인간은행동
에서언제나자기본성의명령에복종한다.** 가장힘오스런행위들이나, 공정한행위
들, 가장매력적인행위들도모두마찬가지로개체의요구에지배를받는다. 다양하
게행위하지만, 개체는행위의결과로쾌락을예상하는가혹은고통을피할수있는
가에준하여행동한다.

이것은전적으로확정된사실이다.

바로이것이소위이기주의이론의본질을구성한다.

이제다음과같이질문할수있다. 이러한보편적결론이우리를더욱발전하게만
든단말인가?

그렇다. 물론발전하게만든다. 우리들은싸워진실을찾고, 모든편견들의뿌
리에놓인편견을파괴하였다. 이결론에는인간과관련된모든유물론철학들이결
합되어있다. 그러나이결론으로부터모든인간의행위는공정하다고서둘러추론
할수있는가? 이제이것에대해서고찰하겠다.

III

모든인간의행위들은공통의기원을갖는다는것을우리는이미보았다. 이성적
인족의식적인행위들이다. 무의식적습관들에대해서는나중에언급하겠다. 악덕
이라고일컫는것처럼선하다고하는행위들, 천박한사기처럼위대한자기희생, 혐

오스런행동처럼호감을주는행위도, 모든것은하나의원천으로부터유래한다. 이 모든것은인간의자연적요구를충족하기위해창조되고, 모든것은쾌락을추구하고고통을피하려는목적을갖는다. 증거로채택된많은사실들로부터나온짧은결론인앞장에서우리는이미이것을살펴보았다.

여전히종교원리에젖어있는사람들이그러한설명에대해항의할것이라는것은이해할수있다. 이설명에는초자연적인것을위한자리는없다. 여기에서영혼불멸의사상은완전히제외된다. 인간의행위가본성의요구만을따르고, 인간이소위 ‘의식하는자동기계’라면, 불멸의영혼은사라지고말것이다. 불멸, 이것은기쁨은적게그러나고통은지나치게많이겪고, 저승에서의보상을꿈꾸는사람들의마지막도피처이다. 편견에따라교육받은사람들, 과학이자신들을기만한다는이유로과학을나쁘게생각하는사람들, 이성보다는감정에이끌리는사람들은자신들의마지막희망을앗아가는이해석을외면하였다.

그러나지난세기초부터오늘날까지, 인간행위에대한자연적설명을 (원한다면이것을이기주의이론이라고하자) 들을때면, 언제든지앞에서젊은니힐리스트가내렸던것과같은결론을서둘러내리는사람들이있다. 이들에대해서무슨말을할수있을까? “도덕을타도하라!”고외치는사람들이있다. 이들에대해서무슨말을할수있을까?

인간은자신의자연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이러저러하게행동한다고확신하면서**인간의모든행위는공정하며**, 선과악은아무곳에도존재하지않고, 목숨을걸고물에빠진사람을구하는것이나시계를빼앗으려고그를억사시키는것은공정하다고서둘러결론을내리는사람들이있다. 모든행동은전적으로동일하며, 인간해방운동을이유로교수형당하는순교자와동료들을등쳐먹은사기꾼은, 쾌락을추구한다는저에서동등하다고서둘러결론을내리는사람들이있다. 이들에대해서무슨말을할수있을까?

추가로그들은, 향기와악취도, 장미의향기와고무나무의악취도존재할수없으며, 좋은맛도나쁜맛도존재하지않으며, 아름다움도, 신체적추악함도, 우둔함도, 이성도존재하지않는다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모든냄새는분자의움직임일뿐이고, 키니네의쓴맛과망고스틴의단맛도분자의진동이기때문이다. 또한미와추, 이상과우둔은유기체의세포내부에서일어나는화학적, 생리학적인움직임의결과이기때문이다. 만일그렇다면그들이실없는소리를하는것이지만, 그래도그들은우자愚者의논리를따르고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그들이이렇게는말하지않는다해도, 우리는이것에대해서어떤결론을이끌어낼수있을까?

우리대답은매우간단하다. 1723년 『꿀벌의우화』에서이문제를다루었던맨더빌, 1860-1870년대의러시아니힐리스트, 오늘날파리의아나키스트도그렇게판단한다. 왜냐하면분명하게이해하지못한채그들은자신들이받은기독교교육의편견에빠져있기때문이다. 스스로를아나키스트, 유물론자, 무신론자라고생각함에도불구하고그들은전적으로교부들혹은불교창시자들처럼판단한다.

이용기, 이헌신은모든시대에존재했다. 그것은모든사회적동물들에게서발견된다. 그것은심지어몰락의시대를사는인간에게도존재한다.

종교는늘이성과를독식하고, 자신의이익을위해그것을보급시켰다. 종교가지금까지존재할수있었던것은무지몽매를제외하면어떤시기에나이용기와헌신에호소한덕분이다.

이용기와헌신의유래를설명해야했을때, 종교가, 공리주의자그리고여러도덕론자들은우리가이미언급했던혼돈에빠지고말았다.

이용감한헌신의참된유래를발견한영예는그어떤신비주의적힘도아니고, 영국학파의공리주의자들이독창적으로고안한그어떤돈중심의입장도아니다. 그영예는자신은그렇게생각하지않았지만아나키스트였던젊은철학자기오의것이다. 칸트의철학이실패하고, 실증주의자들과진화론자들이실패한그지점에서아나키스트철학자들은계속하여진실의길을갔다. 기오는말한다. “**용기와헌신은 자기고유의힘에대한자각으로부터나온다. 이것은충만하고끝없이솟아오르는 생명그자체다.**” 인간은 **실현할수있다**는내적인자각은 **실현해야한다**는인식을향한첫걸음이다.

모든인간은삶속에서도덕적의무감을알게되고, 모든신비적인수단을동원하여그감정을설명하려고했다. 의의무감은생명의잉여이며, 이것은사용되고베풀어지기를모색한다. 이것은동시에자기힘에대한자각이다.

축적된힘은이힘을가로막는장애물에압박을가한다. 행동할 **능력이있는 사람은행동할 의무를갖는다.** 악명높은도덕적의무에대한개념에서신비주의를제거하면다음과같은올바른결론이도출된다. 즉 **생명은확산될때에만보존된다.**

“식물은꽃을피우지않을수없다. 때로개화는죽음을초래한다. 이얼마나큰불행인가! 그러나생명의정수는전진운동을계속한다.”라고젊은아나키스트철학자는말한다. 힘과에너지로충만할때, 그와동일한현상이인간에게서도일어난다. 그의내부에힘이어느정도축적되면, 그는자기생명의잉여분을덜어준다. 그는계산하지않고그것을내준다. 그렇지않는다면그는살수없다. 개화하는꽃처럼죽을운명이라면, 어차피마찬가지아닌가? 생명이과거에는그의내부에만있었지만, 이제생명은계속해서흘러넘친다.

강해지도록하라. 그대의열정과지성의에너지가용솟음치게하라. 그때그대는다른사람들에게이성, 사랑, 활력을나누어줄수있을것이다. 바로이것이도덕에대한위선과동양적금욕주의를씻어낸가르침이전체적으로도달하는결론이다.

반대급부를바라지않고자신의이성, 감정, 활력을나누어주도록자극하는인간의힘, 삶의에너지의잉여, 바로이것이참된도덕적개인과과의관계에서희열을불러일으킨다.

강력한이성의인간속에서는지적생명력이섬처럼솟아오르고, 그는생명력이자연스럽게넘쳐흐를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다른사람들과자신의생각을나눌수없다면, 그런사유는그에게아무런만족도제공하지않는다. 사상적으로빈곤한사람만이어렵게얻은생각을, 그결과를자기의이름으로도장찍듯찍어내기위해

풍속타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들은 자본주의, 종교, 재판, 정부이다. 이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평등의 원리 외에 어떤 다른 원리도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고 돈벌이 중심의 정의 개념에 사로잡혀 자신이 받은 것의 대가로 최소의 것도 주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회에 치명적일 것이다. 심지어 우리 관계 속에서 평등의 원리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의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강하며 아름다운 어떤 것이 삶 속에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타나야 할 어떤 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의지와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위대한 영혼이, 아무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모든 지혜의 힘, 모든 활력, 모든 생명을 바친 영혼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사유, 감정 그리고 의지의 결실은 모든 가능한 형식으로 발현된다. 여기 열정적인 진리 탐구자가 있다. 그는 주변의 무지한 자들의 주장에 맞서, 진리와 정의라고 여기는 것을 찾기 위해 삶의 모든 기쁨을 거부한다. 여기 발명가가 있다. 그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명에 몰두하거나, 헌신적인 여인이 어린 아이에게 하듯 그에게 먹으라고 다 그쳐도 끼니를 잊고 빵에 손도 대지 않고 오늘을 살기도 한다. 여기 열정적인 혁명가가 있다. 그는 가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다면 예술, 과학, 가정 생활의 행복이 주는 즐거움도 통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젊은이가 있다. 그는 온갖 무시무시한 전쟁 기록물에 등장하는 애국심의 전설을 믿고, 자원 병대에 등록한다. 그는 눈속을 전진하고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결국에는 총탄에 맞아 죽는다. 마지막으로 무수히 많은 헌신의 예들이 있다. 이들은 덜 하려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의 늘 인정받지 못한 채 남겨진다. 이러한 예들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우리가 인간 본성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지배와 착취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준 것을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낸다면 계속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은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훨씬 넓은 활동 무대에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 애쓴다. 인류는 이것을 잊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존경받고 신화로 장식되는 이유다. 인류는 그들을 이상화하고, 동화, 노래,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인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용기, 선행, 사랑,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에 대한 기억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활동 무대가 가족 혹은 친구들의 작은 범위에 한정된 사람들도 차도 인류는 잊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기억은 가족 전통 속에서 존중된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림의 가치에 맞는 참된 정의의 창조자들이 된다. 남은 모든 것은 단순한 평등 관계일 뿐이다. 이용기와 헌신이 없다면 인류는 자살한 수지타산의 진흙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미래의 도덕을 만들고, 그 도덕은 우리 아이들이 수지타산에 상관없이 - 에너지, 용기, 사랑은, 가장 생명적인 욕구가 감지되는 그곳에 이 모든 힘들을 투입할 때, 가장 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따라 - 양육될 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실제로 이 선량한 노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육체에 대한 정신의 승리라면 그 행동은 **좋다**. 그런 반면, 육체가 정신에 대해 승리한다면 그 행동은 **나쁘다**. 또한 육체와 정신 중 어느 것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행동은 **공정하다**. 바로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 기독교의 교부들과 불교 승려들의 예를 따랐던 것이다. 즉 **이것이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의 평가를 위한 유일한 범주가 되었다**. “동물들을 보라. 그들에겐 불멸의 영혼이 없다. 그들은 단순히 자연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행동한다. 바로 이것이 동물들의 행위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는 **이유**다.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공정하고, 이때문에 동물들에게는 천국도 지옥도, 상도 벌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친구들은 또 다시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와 석가모니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동물이상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단지 자연적 욕구의 충족만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는 좋은 혹은 나쁜 행위만 존재할 수 없다. 모든 행위는 공정하다.”

언제나 이 저주를 벌과 보복에 대한 생각이 이성으로 가로막는다. 행동이 초자연적 영감에서 비롯되면 좋은 것이며, 이 초자연적 동기가 부재하면 공정한 것이라고 종교 교육은 설교한다. 종교 교육의 이어리석은 유산은 영원하다. 오른쪽 어깨에는 천사가 왼쪽 어깨에는 악마가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이 편견을 비웃은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남아 있다. “악마와 천사를 쫓아 보내면, 난 어떤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그것을 평가할 범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서 악마 그리고 천사와 더불어 성직자를 느낄 수 있다. 유물론적 지식으로 겁데기를 덧칠했지만, 그 윤기만으로 성직자를 감추기에는 불충분하다. 더 나쁜 것은 한편으로는 책찍질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을 수여하는 재판관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나키즘의 원리들도 상과 벌에 대한 생각을 뿌리 뽑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성직자도, 재판관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한다. “고무나무가 악취를 풍기고, 뱀이 우리를 물며, 거짓말쟁이가 허풍을 떨 때,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모두가 자신들의 본성의 욕구에 복종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자! 나도 나의 본성에 복종한다. 즉 나는 악취를 내는 식물을 싫어하고, 독으로 날 죽이는 동물을 싫어하며, 동물보다 더 독살스런 인간을 싫어한다! 지금까지도 존재를 모르는 악마와, 혹은 뱀보다 훨씬 현오하는 재판관과도 비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엄격히 이에 상응하게 행동할 것이다. 나와 미움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과나,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성의 욕구에 복종한다. 그래도 남은 문제는 이성이 그리고 결국 힘이 어느 편에 있는가이다.”

이제 우리들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한 다른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는 훨씬 더 확고한 근거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곤충에서 시작하여 인간에 이르는 동물의 세계는 성경이나 철학에 묻지 않고도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훌륭하게 이해한다. 그 이유는 그들 본성의 욕구 속에, 즉 종의 보존 속에, 궁극적으로는 개별적 개체에게 가능한 존재의 총계 속에 있다.

IV

성서학자, 불교신자, 기독교인, 무슬림은 신적인 영감에 의지하여 선과 악의 경계를 결정한다. 그들은, 즉야만인과 문명인, 문맹인과 학자, 타락한 사람과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 모두는 좋은 행동 혹은 나쁜 행동을 언제나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했다. 특히 나쁜 게 행동하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행동에 종교적 순간이었다고 보았다. 나름대로 철학자·수학자들은 의식에 대하여, 그 어떤 신비적인 명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본질상이 말을 저말로 바꾼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들이 ‘선’과 ‘악’의 개념을 인간만큼이나 잘 파악한다는 단순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그들 중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 더구나 선과 악에 대한 동물들의 개념은 인간의 개념과 완전히 같다. 심지어 곤충, 어류, 조류, 포유류와 같은 개별류 사이에서 이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다.

18 세기의 사상가들이 훌륭하게 이것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관찰은 잊혀졌고, 이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의무는 우리의 몫이 되고 말았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미 연구자인 포렐 (A.H.Forel) 은 수많은 관찰과 사실을 증거로, 배에 꿀을 가득 채운 개미와 배가 빈 개미가 만날 때, 배고픈 개미는 즉각 동료에게 양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작은 곤충들 사이에서 배부른 개미는 배고픈 동료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꿀을 토해내는 것을 의무라고 여긴다. 자기의 몫을 받고 나서 개미집의 다른 개미에게 양식을 나눠 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개미들에게 물어보라. 개미들은 몫짓으로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 몫짓의 의미는 분명하다. 그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대답할 것이다. 개미들은 다른 종의 적들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런 이기주의자를 대한다. 서로 다른 두 종의 개미들이 싸우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이기주의자를 벌하기 위해 전쟁을 중단할 것이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전혀 없다.

당신의 정원에 살고 있는 참새들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창문에서 빵조각 몇 개가 정원에 날아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서, 모든 참새들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스스로 수고하는 대신 이웃 동지에서 다른 참새가 모은 지푸라기를 훔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참새들은 그것이 아주 나쁜 짓이라고 답하고, 모두 함께 독에 게달려 들어 부리로 쪼아낼 것이다.

또 영토 내의 다른 들쥐들이 지하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들쥐에게 물어보라. 그것은 아주 나쁜 짓이라고 대답하고,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두쇠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 종족인 추크치인³에게 종족 중 하나가 주인이 없는 천막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어보라. 이 사람이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짓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지치고 굶주리고 있다

히숨길 수는 없다. 기만적인 겉모습은 인간 사이에 평등이 실현됨에 따라 결국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이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차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고, 그 수준을 서로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미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사회에 성직자도 재판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이것은 훨씬 더 충분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 원리들이 강제의 성격을 상실하고, 서로 평등한 사람들의 자연스런 관계로 인식될 때 그것은 더욱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들이 정립됨에 따라, 사회에는 높은 차원의 도덕 개념이 생긴다. 이제 이것을 분석하도록 하자.

VIII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우리는 평등의 단순한 원리들만을 서술했다. 남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남을 그런 방식으로 대할 권리를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항했고 저항할 것을 호소하였다. 남들이 자신을 속이고, 착취하고, 난폭하게 대하며, 매수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는 전혀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⁷ 우리들은 어떤 이상으로도 개인을 왜곡하기를 거부한다. 즉 우리는 좋게 혹은 나쁘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공감과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만을 갖는다. 어떤 인물이 자기 동료들을 기만할 때, 이 행동에는 그의 의지, 그의 성격이나 나타나는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 하지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자기꾼을 경멸하게 한다. 우리에게 그런 성격이 있고,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즉요즘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꾼을 포용하지도 않고, 악수를 나누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공격적인 감정에 우리도 우리고유의, 그만큼이나 적극적이고 강한 감정으로 대항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평등의 원리를 사회에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모든 것이다. 다시 이것은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⁸

⁷ 모든 현대 작가들 중에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정식화한 사람은 이븐센 (H.Ibsen) 이다. 그는 영국에서 인정받게 된 것처럼 곧 프랑스에서도 열렬하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나키스트처럼 보이게 된 사람이다.

⁸ 이미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소리가 들린다. “살인자 그리고 아이들을 타락시킨 사람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간단한 답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의 내부에서 피에 대한 갈증이 명령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도로 문헌상이다. 이것은 치료하거나 기피해야 할 병자다. 방탕한 사람들 관해서, 우리들은 우선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런 남자들을 전혀 겁내지 않을 것이다.”

³ 역주 - 러시아 연방에 속한 민족. 추코트 자치구의 원주민이다.

이제우리감정은지속적으로분열된다. 우리는우리모두가많건적건, 자유의 지든강요된것이든간에이사회공범이라는것을이해하게된다. 우리에게는더 이상증오할권리가없다. 우리는사랑할권리는갖고있을까? 착취와노예제도위 에건설된사회에서인간적본성은타락한다.

그러나노예제도가사라짐에따라우리는조금씩자신의권리를회복할것이다. 다시우리는사랑하고증오할힘을획득할것이다. 방금앞에서제시한사례와같이 아주복잡한경우에꼭그럴것이다.

우리는거짓과폭력그리고그와유사한것들을싫어한다. 그이유는우리가도덕 법규에따라판단하기때문은아니다. 우리들은이법규를무시한다. 오히려그이유 는인간에게평등은빈말이상의것이며, 거짓과폭력그리고그와유사한것들이인 간의평등의감정을모욕하기때문이다. 그러한것들은사상과행동에서진실한아 나키스트를특히노는게만든다.

매우고양된, 즉도덕론자들이가르치기원하는모든것을포괄하는도덕성을창 조하기위해, 이단순하고자연스러운그리고명백한원리하나만으로도충분하다. 다만, 그것을늘삶에적용시킨다면말이다.

평등의원리는도덕론자들의모든가르침을요약한다. 그러나그안에는그이상 의것이여전히포함되어있다. 개인에대한존중이바로‘그것’이다. 평등의아나키 즘적원리들을선언할때, 우리는도덕론자들이가졌던권리를, 즉자신들이옳다고 생각하는이상을위하여개인을왜곡하는권리를거부한다. 우리는어느누구에게 도그런권리를인정하지않으며, 우리자신을위해서도그것을원하지않는다.

우리는개인의제한없고완전한자유를인정한다. 개인을위해우리는모든자질 의자유로운발전과존재의완전성을원한다. 우리는개인에게강요하기를원하지 않고, 푸리에가종교적도덕에대한대립원리로제시한것으로돌아간다. 즉“인간 에게절대적자유를주고, 그를왜곡하지말라. 이것은이미종교에의해서충분히자 행되었다. 인간의욕망을두려워하지말라. 자유로운사회에서욕망은어떤위험의 소지도제공하지않을것이다. 우리자신은스스로의자유를거부하지말고, 다른사 람들이자신을노예화하도록허용하지않으며, 이러저러한개인의강력하고반사 회적인욕망에대하여자기고유의, 아주치열한사회적감정으로대항하기만하면 될것이다.”

우리의일상적삶과관련해서이미지금우리들은우리의동정심혹은반감에자 유로운흐름을제공하여, 주어진순간마다이것을실천하고있다. 우리모두는도덕 적힘을존중하고도덕적나약, 무기력, 비열을경멸한다. 우리가좋다고여기는사 람들의사회적으로유익한행동에대해우리는매순간말, 시선, 미소로만족감을표 시한다. 비열, 사기, 음모, 도덕적용기의부족이야기하는혐오감을매순간우리는 시선과말로표현한다.

우리는상류사회의, 즉위선적‘교육’의영향을받았기때문에, 여전히기만적 인겉모습아래이혐오감을숨기려애쓴다. 그러나그때에도우리는혐오감을완전

면, 그는식량을발견한그곳에서음식을가져갈권리를갖는다. 그러나그런경우에 사냥을나갔던주인이돌아와부랑자가아니라동료가방문했었다는것을알수있도 록, 그는천막에모자, 칼혹은매듭이있는끈조각을남겨두어야한다.

그런예방책은주인이천막근처에도둑이들었다고생각할때생길수도있는수 고를덜어줄것이다.

수천가지유사한예를더할수있다. 인간과동물에게서선과악의개념은동일하 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여러권의책을쓸수도있을것이다.

개미, 새, 들쥐, 추크치인은모두칸토도, 성스런교부들도, 심지어모세도읽 지않았다. 그러나그들모두에게선과악에대한표상은동일하다. 이들개념의토대 에놓여있는것에대해여러분이조금만생각해본다면, 개미, 들쥐, 기독교도혹은 무신론자도덕주의자들모두는종의보존에이로운것을좋은것으로, 해로운것을 나쁜것으로인정한다는사실이명백해질것이다. 벤담혹은밀이주장하듯이개체 에게이롭거나불리한것이아니라, 종전체에이로운가아니면불리한가가기준이 된다.

이렇게선과악에대한개념은종교혹은신비주의적의식과아무관련이없다. 그 것은동물류의자연적욕구다. 종교창시자, 철학자, 도덕론자들이우리에게신적 이고신비적인본질에대해언급할때, 그들은개미, 참새들각각이그들의작은사회 에서실천하는그것을되새김질할뿐이다. 즉“이것이사회를위해이로운것인가? 그런경우에이것은 **좋다**.”

“이것이사회에해로운가? 그런경우에이것은 **나쁘다**.”

낮은등급의동물들에한정된개념은점차동물의왕국에서높은단계로확장 된다. 하지만그것의본질은언제나동일하게유지된다. 개미의경우에그것은개미 총의경계를벗어나지않는다. 연대連帶의관습과공동거주의모든규칙들은개미 총의개체들에게똑같이적용된다. 어떤경우에도자신이지닌양식을개미총의다 른동료들에게꼭나누어주어야한다. 두개미총이한가족으로합치는일은재난이 두집단을위협할경우에만정된다. 마찬가지로룩셈부르크공원의참새들도서로 놀라운연대를보여준다. 하지만, 몽그 (Monge) 거리의참새들이영역을침범할 때에는격렬한싸움을감행한다. 추크치인은다른종족들을자기종족의관습이적 용되지않는인간으로여긴다. 심지어그에게물건을파는것도허용된다. 언제나판 매한다는것은, 어느정도, 구매자에게서훔친다는것을의미한다. 즉양쪽중누군 가는즉, 판매자혹은구매자든지언제나속임을당한다는것이다. 같은종의구성원 에게무엇인가를판매한다는것은범죄다. 그들은절대로계산하지않고 **준다**.

자신과파푸아인사이존재하는얼핏보아서잘파악되지않는밀접한관계를 이해한후문명인은자신의연대원리를모든종의인간에게심지어는가족들에게도 전파한다. 개념은자라지만본질은언제나동일하게유지된다.

다른한편, 선과악에대한개념들은문명화수준과지식의확산에따라변한다.

이들개념은불변성을갖지않는다. 늙은부모가공동체에부담이되고, 그부담 이매우극단적일때원시인은그들을먹는것이 **매우좋다고생각한다**. 즉종족에게

유리하다고 보았을 수 있다. 어머니들이 세살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충분히 양육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원시인은 가족 당 둘 혹은 세 명만 남기고 나머지 신생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좋다고, 즉 공동체를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났다. 존재수단들이 석기 시대의 그것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시 가족은 늙은 부모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반쯤 굶주리며 살다가 곧 늙은 부모도 어린식구들도 먹여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처할 것인가의 두 가지 악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문명인은 그들과 비교하여 다른 조건들 속에 존재한다. 상상만으로도 그때의 모습을 그려 내기가 어렵겠지만 당시의 조건에서 반야만인들의 판단이 충분히 옳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원주민들이 부모와 적들을 먹지 않게 된 이후로,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이 괴혈병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⁴

종의 보존을 위해 무엇이 이름고 해로운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변하고, 판단도 변한다. 그러나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동물 왕국의 모든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개미, 새, 들쥐, 인간 모두는 한 점에서만 낯설다. 기독교인들은 말한다. “이웃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동물 세계와 훨씬 더 높은 체제의 관습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 도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덧붙인다. “이것은 충고 이상의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라.” 그러나 이 충고는 인간을 포함한 사회적 동물에 대한 오랜 연구의 열매이다. 이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다. 이 원리가 없다면 사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민족도 그들이 싸워야 하는 자연적 장애들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의 세계와 인간 사회의 관습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이토록 단순한 원리가 현실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 원리는 그것에 추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어떻게 그 원리는 서서히 습관으로 변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V

인간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 발전 단계에 있건, 반대로 편견과 이기적 이해 때문에 생각이 안개에 덮여 있건,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이로울 것을 좋게 여기고, 사회에 해로운 것을 나쁘게 여긴다.**

이 추론은 감정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료하다. 그러나 그런 추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충고를 하는 것이다. 충고를 하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인다. “이 충고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네 자신이 확신하는 한에만 필요한 것이다.”

젊은이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그렇게 해서 가슴과 폐를 누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몸을 곧게 펴고 머리를 높여 들어, 가슴에 공기를 흠뻑 들며 마시라고 그에게 충고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폐결핵 예방의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폐의 기능을 알고, 스스로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찾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생리학을 가르친다.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도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충고하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일 권리만을 갖는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르라.”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누가 어떻게 어떤 반사회적 행동을 하든 지 그를 처벌하는 사회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정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좋다고 여기는 것을 사랑하고, 나쁘다고 여기는 것을 증오할 능력을 거부하지 않는다. 증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증오한다. 우리는 이 권리를 갖는다. 왜냐하면 동물 사회 각각의 도덕 감정이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원리 하나만으로도 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류의 도덕적 감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 가지만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 두 감정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 우리의 판단을 거짓된 길로 이끄는 모든 것, 즉 국가, 교회, 그리고 재판관, 성직자, 정부, 착취자의 착취를 폐지하는 것이다.

살인마 잭 (Jack the ripper) 은 가난하고 불쌍한 여성 10 명을 차례로 살해하였다.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여자 중선량은 4 분의 3 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잭을 볼 때 우리의 첫 반응은 혐오감이다.

속박비로 6 수를 요구하는 여성을 난도질하는 잭과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총으로 쏘아 버릴 것이다. 이때 우리는 총알이 집 소유자의 머리를 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살인에 이르게 한 모든 비열함을 상기할 때, 그가 혐오스런 책들에서 퍼올린 형상들 혹은 어리석은 책에서 보고 들은 관념들에 쫓기며 해매던 어둠을 상상할 때, 우리의 감정은 돌로 분열된다. 잭이 재판관의 손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미 냉혹한 정신병자들의 손에 떨어졌음을 알게 될 때, 강도 잭에 대한 우리의 증오는 사라지고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될 것이다. 재판관 자신은 잭과 같은 사람들이 한 것보다 열배가 더 많은 인간 (남성, 여성, 아이들) 의 삶을 냉혹하게 유린하였으며 자신들이 부르주아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해 죄없는 사람들을 유형지로 보내기 때문이다. 증오는 위선적이고 비겁한 사회로, 사회의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자들에게로 옮겨간다. 한 강도의 모든 비열함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세기 동안의 비열함 앞에서는 사라지고 만다. 우리는 법을 증오하기 시작한다.

⁴ 미클루호 - 미클라이가 이것을 확인하였고, 알려진 것처럼 그의 관찰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방식으로 주변세계와관련된우리의행동은습관으로변한다. 기독교인은 언제나악마가그를악행으로이끈다고믿고, 지옥의고통혹은천국의지복에의존해서만악행을자제할수있다. 그러나많은양의좋은습관을습득한사람은선량한 기독교인보다훨씬더완전해질것이다.

남에게대접받기원하는대로, 남과의관계에서그렇게대접해야한다. 이것이 인간과모든사회적동물에게서단순한 습관이되면, 인간은보통자신이어떤경우에어떻게행동해야할것인가하는문제에골몰하지않는다. 그는깊이생각하지않고도종게혹은나쁘게행동한다. 상황이매우복잡하거나무분별한욕망이밀려드는예외적인경우에만인간은동요하기시작한다. 그의모든뇌세포들은서로간의싸움에몰입한다. 이러한뇌는극도로복잡한기관으로, 그것의각부분들은어느정도독립적으로기능한다. 그때나는관련을맺고있는인물의입장에서생각해본다. 그는사람들이그자신을그러한방식으로대접해주기를그자신이바라고있는가를고민한다. 그는상대방의장점혹은이익을침해할준비가되어있다. 그러나이때그가상대방과자신을성공적으로동일시하는정도가높을수록, 그의결정은더욱더도덕적이될것이다. 혹은어떤친구가개입하여그에게이렇게말할수도있다. “상대방의입장이되어보도록해. 네가방금그를대접한것처럼, 그가너를그렇게대접하기를너는허락하겠니?”이것으로완전히충분하다.

즉, 의심이생길때만평등의원리에의존해야한다. 백중아흔아홉번의경우에우리는습관덕분에도덕적으로행동한다.

지금까지의서술에서우리는절대로 규정하지않고, 인간과동물세계에서일어나는것을단순히묘사했다는것을알았을것이다. 이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과거에교회는사람들을도덕적으로만들기위해지옥의고통으로위협했다. 그러나그결과가어떠했는지모두잘알고있다. 교회는그들을비도덕적인간으로만들고말았던것이다. 재판관은감옥, 채찍, 교수형으로위협한다. 이모든것은사회성의원리를근거로진행된다. 재판관은이원리를가지고사회에사기를치는것이다. 이렇게해서재판관은사회를타락시킨다. 재판관이지구에서성직자와사라질수있다는생각만으로도온갖종류의권위자들은사회가붕괴될것이라고비명을지를것이다.

우리로말하자면, 우리는재판관과선고를거부한다. 우리는이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 기오가그런것처럼우리는도덕을승인하고강요하는모든시도마저도부정한다. “원하는것을하라, 원하는방식으로하라.”는것이다. 왜냐하면대다수의사람들은어느정도계몽되는가에따라, 우리시대의고빠로부터얼마나벗어나는가에따라, 언제나일정한방향으로, 즉사회의이익을위해행동하고행위할것이란것을우리는확신하기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의부모도그랬다는이유만으로기어다니는어린아이가언젠가는두발로걷게될것이라는것을우리가미리확신하는것처럼그렇다.

예를들어류類로서의인간에대해사유할생각을한번도하지않았던수백만의인간이있다고하자. 류類로서의인간에대한그들의개념은대부분의경우씨족에제한된다. 민족으로제한되는경우는드물고, 인류로제한되는경우는더드물다. 그들이협소한이기주의를거부하고인류에게이로운것을선으로여기는것, 또그들이자신의씨족내에서연대감을성취하는것은어떻게가능할까?

모든시대의사상가들은오랫동안이문제를연구하였고, 지금도여전히연구하고있으며, 매년이주제에대해수많은책들이집필되고있다.

이제이문제에대한우리의관점을피력하도록하겠다. 그리고설명을달리하는경우에도사실자체는논쟁의여지가없으며, 우리의해설이신빙성없고불완전한경우에도사실자체는그로부터도출된모든결론과함께현존한다는것을 짧게 언급한다.

태양의주변을돌고있는행성의기원에대해우리는정확하게알수없다. 그럼에도행성들은계속회전하고, 그들중하나가우리를공간속으로이끈다.

종교가이문제에대해설명한것을우리는이미말했다. 교부들에따르면, 다만신이개념을불어넣어주었기때문에인간은선과악을구별한다. 이롭거나해로운것은인간이상관할바가아니며, 인간에게는창조주의생각을따르는일만남았다. 야만인의공포와무지의결과인이런설명에머물지말고, 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자.

다른사람들은(홉스와같이) 법에서설명을찾으려고하였다. 그들에따르면, 법은인간이 정의와불의, 선과악의감정을발전시킬수있게한다.

우리의독자들은이설명에대해적합한평가를내릴수있다. 소수의착취자들에게대항하여사람들은봉기를일으킨다. 그러나착취자들에게유리하도록개념들을주입시키기위하여, 법은인간의사회적본능을단순히이용한다. 독자들은이사실을잘알고있다. 법은정의의발전을촉진하는대신에정의감을왜곡하였다. 계속해서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자.

공리주의자들에게대한심에만머물지는않도록하자. 인간은개인적인이익때문에도덕적으로행동한다고그들은주장하고, 인류와의연대감정을표명한다. 이감정의기원을어떻게설명하는가와상관없이, 연대감은존재하고있다. 그들의주장에는진실의일부가담겨져있다. 그러나이것도아직은진실과는거리가멀다. 계속해서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자.

부분적임에도불구하고도덕감정의원천에대한규명은유일하게 18 세기사상가들의공적이다.

아담스미스(Adam Smith)는자신의탁월한저서⁵에서도덕감정의참다운기원을상당히해명하였다. 그는종교혹은신비주의적감정에서그것을찾지않고,

⁵ 역주 - 아담스미스를도덕철학자로유명하게만든 『도덕감정론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이다.

동정심이란단순한요소에서찾았다. 그러나성직자들은이저서에대해깊이침묵하고있으며, 무신론적사상가대부분도이저서를실제로잘모르고있다.

예를들어, 어른이아이를때리는것을보았다고하자. 당신들은구타가아이에게고통을야기함을알고있다. 상상만으로여러분은아이에게가해진악을생생하게느낄수있다. 혹은아이의울음, 이작은얼굴에나타난고통의표현은여러분에게악을웅변한다. 겁쟁이가아니라면여러분은가해자에게즉시달려들어이집승에게서아이를빼앗을것이다.

모든도덕감정을설명하기위해이하나의사례만으로도충분하다. 여러분의상상력이풍부하게될수록여러분은고통을강요당한아이의감정을더잘떠올릴수있으며, 여러분의도덕감정은더강력하고더섬세하게될것이다. 다른사람의입장에서생각하는능력이발전할수록그에게모욕감을일으키는악을, 그리고아이를피해자로만드는불의를당신은더생생하게느끼고, 악, 모욕, 혹은불의에저항하는성향은더욱강해진다. 환경이나주변사람들의영향을받아, 혹은강력한상상력과사유덕분에여러분은상상과사유가이끄는방향으로행동하는데더욱익숙해질것이다. 그와더불어여러분안의도덕감정도더욱더성장하고강해지며, 더욱많은습관의힘을획득할수있을것이다.

바로이것이아담스미스가많은양의사례를제시하면서발전시킨사상의내용이다. 이책을쓸무렵그는젊었지만, 그것은그가나아들어집필한‘정치경제학’보다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은가치를갖는다. 모든종교적편견에서자유로운아담스미스는인간본성의물리적현상에서도덕성의설명을찾으려하였다. 바로이것이한세기동안교회와세속의종교적편견이이책을금지한이유이다.

아담스미스는동정심의요소가인간에게서처럼동물들에게도존재한다는사실을이해하지못했다. 이것이그의유일한오류였다.

다윈 (Darwin) 류의통속적인풍속해설자들은멜서스 (T.R.Malthus) 에서차용한것이아니면모든것을부정한다. 그러므로그들이나쁘게받아들이지않기를바란다. 그러나연대감은사회를이루며사는모든동물들의지배적인특징이다. 실제로, 독수리는참새를먹이로삼고, 늑대는들쥐를공격한다. 그러나독수리도늑대도사냥할때는서로돕고, 참새와들쥐는서로연대하여육식동물들을방어한다. 얼빠진것들만이이들의발톱에걸려든다. 어떤동물의사회에서도연대는자연의법칙이며, 악명높은‘존재를위한투쟁’보다도자본주의자들이결국우리를명칭하게만들기위한목소리로찬미하는덕행보다도훨씬중요하다.

우리는동물의세계를연구하고, 각각의생물체가불리한환경조건과적들에게항하여수행하는존재를위한투쟁을규명하려한다. 이때우리는일정한동물사회에서평등과연대의원리들이발전하고그원리들이변하여그들의습관이될수록, 그사회는더큰생존의기회를갖게되며, 불리한환경과적과의싸움에서승자가될기회가더욱증가한다는것을확인하게된다. 사회의각구성원이다른구성원들과의연대를더욱생생하게의식할수록, 사회의모든구성원들속에승리와진보의주요결정요소인두가지특징이더욱더발전한다. 하나는용기이고, 다른한나는자유

페롭스카야와그의동료들은러시아황제를압살하였다. 유혈을싫어하고, 농노를해방시킨황제에게호감을갖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모든사람들은그들이그렇게행동할권리를갖고있음을인정하였다.

왜그랬을까? 이행위가이롭다는인정을받았기때문은아니었다. 여전히인류의 4 분의 3 은그행위가이롭다고생각하지않는다. 대신모든사람들은, 페롭스카야와그의동료들이세상의그어떤금은보화를준다해도폭군이되는것에동의하지않았을것이라고느꼈기때문이었다. 심지어이사건전체를알지못하는사람들도이행동에는젊은이들의무모함, 궁정혁명혹은권력찬탈시도가아니라폭정에대한증오가있었으며, 그때문에페롭스카야와동료들은자기희생과죽음의길을택했다고확신하고있다. 루이자미셀에대해“그녀는빼앗을권리를가졌다.”고말하는것처럼, 사람들은“그들은살인할권리를획득하였다.”고말한다. 혹은헤르손재정국에서백만심어이백만을훔치면서도, 자신들은마른빵을먹었던테러리스트들을상기할때, 사람들은“그들은도둑질할권리를가졌다.”고말한다. 이때에도장전된총을들고금고로지키던보초들이책임을지지않도록, 그들은죽음을무릅쓰고모든예방조치를취했던것이다.

인류는 **이권리를이미획득한사람**들이바리케이드혹은총성이난무하는사거리에서폭력을사용할권리를결코부정하지않는다. 그러나이러한행동들이여론에심오한영향을줄수있으려면, 이권리를필수적으로획득해야한다. 그렇지않은경우해로운행위처럼이로운행위도사상의진보를위해아무런의미없는무모한행위가될뿐이다. 사람들은그것을단순히폭력의위치이동, 단순히한착취자를다른착취자로교체하는것으로볼것이다.

VII

지금까지우리는인간의 (명료하게이해하고행하는) 의식적인행위에대해말했다. 그러나의식적삶과나란히훨씬더광범위한무의식적삶이흘러간다. 이무의식적삶은전에는아무런관심을끌지못했다.

우리는지난밤단추가떨어진사실을알면서도, 단추를채우려하거나, 자신이다른장소에 옮겨놓고도옷을집으려고손을뻗는다. 이런일은아침마다일어난다. 무의식적삶에대한표상을얻기위해서, 그것이우리의삶에서수행하는큰역할을이해하기위해서이런습관을관찰하는것으로충분하다.

타인에대한관계의 4 분의 3 은무의식적행위로구성된다. 누구나말하고, 미소짓고, 찌푸리고, 고민하고혹은논쟁할때도차분하게행동하는자신만의방식이있다. 인간혹은인간이전의선조에게서물려받은습관덕분에, 우리는분명하게인식하지않고도모든행위를행한다.

중개여기는가에대한문제에깊이생각하는가? 당신이이문제에관심을갖는다면, 그경우우리의답변은매우간단하다.

그렇다. 물론우리는힘에의존할권리를갖는다. 왜냐하면이경우, 전혀해를 끼치지않는통킹시나줄루족을우리가공격한다면, 독사를죽이듯이우리를죽이기를우리자신이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즉“우리가언젠가공격자의편에서게된다면우리를죽여라.”라고우리는자식들에게, 동료들에게말한다. 우리가언젠가 자신의원칙을배반하고, 동포를착취하기위해상속권을갖는다면그것이아늘에서떨어진것이라해도그것은우리자신들을착취하라고요구하는것이다.

또한모든고결한인간은자신이독사로변하는경우에자신을죽여주기를미리 요구한다. 그리고자신이왕좌에서밀려난폭군의자리에서게되는경우에칼로심장을찌를것을요구한다.

아내와아이를가진사람백명중 90 명은자신에게광기 (행동에대한의식의통제력상실) 가나타날것을확신하게되면, 사랑하는사람들에게해를끼칠수있다는 두려움때문에자살을택할것이다. 고결한사람들은사랑하는사람들에게위험이 된다는것을느끼는순간이위험이현실화되기전에죽을준비가되어있다.

언젠가이르쿠츠크에서미친개가의사와사진사를물었다. 사진사는달귀진쇠로상처를지졌다. 의사는부식성약품을바르는것으로그쳤다. 그는젊고, 착하고, 활력이넘쳤다. 그는최근에강제노동에서돌아왔다. 민중을위해희생적으로봉사했다는이유로정부가그를유형에서해방한것이다. 그는많은지식과지혜를갖고치유의기적을이루어냈다. 환자들은그를숭배하였다. 6 주후그는물린손가락이부어오르는것을발견했다. 의사가실수할리없었다. 그것은광견병의징후였다. 그는자신처럼의사이고추방객인동료에게달려갔다. “즉시스트리크닌을⁶ 줘, 부탁이야, 제발. 이손을봐. 이게무엇을의미하는지알지? 몇시간지나면, 아니그보다일찍광견병발작이일어날거야. 그러면난나자신과친구들을몰어뜯으려고할 거야. 시간이없어. 빨리스트리크닌을. 난죽어야해.”

독사로변할것을느끼고그는자신을죽여줄것을요구하였다. 동료는망설였다. 그는광견병을치료하기위해모든방법을시도해보고싶었다. 그는용감한여인과함께그를간호했다. 두시간후의사는입에거품을물고달려들어몰어뜯으려했다. 그에게다시정신이돌아왔다. 그는스트리크닌을요구하였다. 그는다시발작을일으켰다. 그는무섭게경련하면서죽어갔다. 우리연구자들이확인한유사한사례를우리는더많이제시할수있다! 고결한인간은남에게고통을주기보다는죽음을택한다. 바로이것이독사혹은폭군을죽일때, 자신이올바르게행동한다는의식이발생하는원천이다. 그가존경하는사람들의동의를행동의정당성을보증한다.

⁶ 역주 - 스트리크닌 (strychnine), 마전의씨에함유되어있는알칼로이드. 백색결정으로매우 유독하다.

로운개인적주도권이다. 반대로일정한동물사회혹은작은집단에서연대감이줄어들수록다른두결정요소의강도도낮아지고, 결국에는사라진다. 그때해체직전에이른사회는적에의해붕괴될수밖에없다. 연대감의감소는절대적풍요에서비롯된다.

상호신뢰가없다면투쟁은불가능하게되고, 용기, 주도권, 연대가없다면승리는존재하지않는다. 패배는불가피하다.

결국이질문으로돌아가서, 동물과인간의세계에서연대의법칙은진보의법칙이며, 용기와이로부터나오는개인적주도권처럼상호부조의원리는이원리들을 적용하는법을배운중에게승리를보장한다. 우리는이것을많은예를통해증명할 수있다. 이제우리는이사실을충분히검증하였다. 우리의관심을끌고있는질문을 위해이사실이매우중요함을독자들도충분히이해할수있을것이다.

지상에나타난동물의첫배아로부터시작하여, 이연대감이수백만세기동안활동하고있음을이제상상해보라. 이감정은조금씩습관으로변하고, 유전을통해가장단순한미세조직으로부터곤충, 조류, 파충류, 포유류, 인간이라는더높은단계의생물로전달되었음을상상해보라. 이런것들을상상해보면, 여러분은도덕감정의기원을이해하게될것이다. 먹이와그것을소화하는소화기관이필요한것처럼도덕감정도동물에게 필수적이다.

더낮은단계의동물세계는살펴보지않겠다. 왜냐하면가장단순한미세조직들의군체로이루어진복잡한조직에대해언급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는바로연대감에도덕감정의기원이있음을알수있다. 우리는이광범위한질문을몇쪽에아주간단하게기술해야한다. 그러나도덕감정의기원에는신비적인것도감상적인것도전혀없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는이것으로도충분하다. 개체와류類의연대감이없었다면동물세계는발전할수도완성될수도없었을것이다. 물속을헤엄치고현미경으로만볼수있는원형질조각은지금지구에서가장완전한생물체일지도모른다. 그것이앞으로도존재할수있다면, 그것은최초의세포덩어리가투쟁에서연합했다는사실때문이다.

VI

자, 우리는이익을쫓는부르주아로서가아니라단순한이성적연구자로서동물의사회를관찰하려고한다. 우리는이관찰에서“비슷한경우에남에게대접받기원한다면, 너희도남과의관계에서그렇게대접하라.”는원리는사회가존재하는모든곳에서발견됨을확인해야한다.

동물세계의발전혹은진화를면밀하게연구한다면, 여러분도동물학자케슬레르와경제학자체르니셰프스키처럼동물세계의발전에서‘연대성’의원리가그어떤

적응력보다도 훨씬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할 것이다. 연대성과 달리 적응력은 개체들 사이에서 개별적 이익 때문에 발생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사실은 연대의 원리가 여전히 인간 사회에서도 더 자주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유인원 사회는 연대성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탁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인간은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다. 이것만 이적대적 환경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로부터 인간이 보잘 것 없는 중을 보존하고 지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도석기 시대의 발전 수준에 있는 원시 사회를 연구하면, 이들 작은 사회에서 연대성의 원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의 관계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연대감과 그것의 실천적 적용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이다. 일정 기간이 원리를 배척했던 폭정, 노예제도, 착취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에조차도 이 원리는 언제나 다수의 생각을 지배했고, 그 속에 깊게 뿌리 내렸다. 그 결과 불만족스런 체제에 대한 봉기와 혁명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없었다면 사회는 틀림없이 붕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들에게서 이 감정은 습득된 습관의 형태로 남아 있고, 남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식하지 않고 행동할 때에도 늘 현존하는 원리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도 동물 세계의 진화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진화는 아주 오래, 수억 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의 도덕심은 후각이나 촉각처럼 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다.

법과 종교도 이 원리를 설교한다. 그러나 전자는 자신의 상품을, 즉 승리자, 착취자, 사제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것을 기만적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연대성의 정당성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성의 원리 없이 어떻게 이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종교도 법도 이 원리로 위장하였다. 마치 권력이 강자와 대립하고 있는 약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강요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종교, 법 그리고 권력을 버리고 난 후에, 인류는 빼앗겼던 도덕 원리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도덕 원리를 비판함으로써, 도덕 원리를 왜곡으로부터 정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성직자, 재판관 그리고 지배자는 왜곡으로 도덕 원리를 병들게 만들었고, 여전히 병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와 법이 악용했다는 이유로 도덕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꾸란이 매일 청결의무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씻지 않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금했다고 해서 섬모충이 있는 돼지를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샤리아(꾸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슬람 종교적 사회관습법)가 3 년 동안 경작되지 않은 모든 토지는 공동체 소유가 된다고 규정했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과 같다.

게다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하는 원리가 아나키즘의 토대에 놓인 평등의 원리와 본질상 다르단 말인가? 아나키즘의 원리를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무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남들이 기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늘 하나의 진실만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도 기만하기를 원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의 진실만을 그리고 나아가 모든 진실만을 말할 의무를 스스로 진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의 결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타인의 노동의 산물에 대한 불가침성을 존중한다고 선언한다.

진실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요구하면서, 남에게 원전하다든 태도를 보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어떤 우연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남을 다룰 권리를 가진 키르기스인들의 ‘힐빠’(특권층)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장 원초적인 평등의 감정은 이런 생각에 대해 크게 항의한다. 상호관계에서의 평등과 이로부터 나오는 연대성, 이들은 존재를 위한 투쟁에서 동물 세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평등, 이것은 정의다. 우리는 아나키스트임을 자임하며,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남을 대접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공감하지 않은 방향으로 폭력, 간교와 술책을 행사할 가능성을 주는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동의어인 평등은 아나키즘의 본질을 이룬다. 잘 믿는 이웃을 기만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힐빠’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기회가 되면 근절시킬 것이다. 우리는 법,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는 빛나간 삼위일체에게 만전쟁을 선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간교, 착취, 음란과 타락,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불평등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행동, 그러한 모든 사유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신민 臣民, 기만당한 사람, 착취당한 사람, 매춘부 등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의감을 부끄럽게 만든다. 더 이상 우리는 매춘부도, 착취당한 사람도, 기만당한 사람도, 충성스런 신민도 원하지 않는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처럼, 아마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언제나 남과의 관계에서 당신들도 대접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당신은 무슨 권리로 특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나라를 침범한 문명인 혹은 야만인을 향해 대포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가? 당신은 무슨 권리로 착취자의 소유물을 박탈할 수 있다고 하는가? 무슨 권리로 폭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가?”

무슨 권리로? 법에서 허용한 이상스런 용어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당신이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은 그 행동이 좋다는 의식이 당신 안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깊이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